성폭력 피해자와 연대, '연민' 기반해야

불교평론 74호, '성윤리와 불교' 특집

韓 사회 '젠더기반 폭력' 만연
폭력 구조 직시, '미투'의 핵심
교단 내 성폭력, 개인 일탈 치부
위계·폐쇄적 사찰 구조 등 살펴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8년 상반기 한국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키워드 중 하나는 '미투(Me Too)'다. 2017년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한국에서 폭발적인 사회현상으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혜화역 시위 등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에서도 성범죄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불교 대표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이 최근 발간한 여름호(통권 74호)의 특집인 '한국사회의 성윤리와 불교'는 '미투' 운동과 확산될 수 밖에 없었던 한국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불교 안에서의 성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욕망 아닌 권력 구조의 문제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은 '욕망과 권력 그리고 성담론의 상관관계'에서 남성 중심적 권력 기제가 어떻게 여성에게 발현되는지를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비판한다. 김 소장에 따르면 '젠더 기반 폭력'은 여성을 차별하는 개인 인식과 사회 구조적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

그는 "성폭력은 '폭력'의 형태에 '성'이 개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라며 가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한다"며 "성폭력은 성욕이 일으킨 폭력이 아니라 성별·지위 등의 권력 관계를 이용해 성욕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문제는 욕망이 아닌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김 소장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 및 성폭력 고발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미투가 문제 삼는 것은 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이라며 "미투를 통해 성폭력은 가해자 개인의 성욕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폭력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권력구조에 관심을 돌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를 성찰하지 않고 욕망의 문제로 화살의 끝을 돌리는 이상 그 구조에 공모하게 된다. 욕망이 아니라 폭력의 구조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 권력 구조와 性 문제

조승미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강사도 불교 교단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파계로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폭력 문제 이해와 한국불교 권력 구조'에서 "현재 한국불교에서 드러난 성폭력 문제를 권력 구조에 대한 분석없이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시행할 수 없다"며, △성차별주의 △출·재가 위계구조 △폐쇄적인 사찰 조직을 성폭력 문제를 야기하는 한국불교의 권력구조임을 지적했다.

"종교 성폭력의 특징이 성직자의 절대적 권위와 위계구조에 따른 폭력"임을 전제한 조 강사는 "한국불교의 출·재가, 남녀의 이중적인 위계문화는 성폭력 발생의 취약구조"라고 비판하며 "성폭력이 발생해도 은폐돼 해결되기 쉽지 않는 것은 사찰의 폐쇄적 운영 구조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강사는 '연민'을 통한 공감과 연대를 제안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고통 또한 실체가 없으니 마음먹기 달렸다는 조언은 연민을 잃어버린 것"이라며 "연민을 기반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폭력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불자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룡사·감은사 진신사리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계종 불교중앙博, 11일 조계사서 환수고불식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6월 11일 '황룡사·감은사 부처님 진신사리 환수 고불식'을 봉행하고 진신사리의 환지본처를 부처님께 알렸다. 사진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운하고 있는 모습.

경주 신라 고찰 황룡사와 감은사에 봉안돼 있었으나 유출돼 현재 박물관 수장고에 있었던 부처님 진신사리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오심)은 6월 11일 '황룡사·감은사 부처님 진신사리 환수 고불식'을 봉행하고 진신사리의 환지본처를 부처님께 알렸다.

환수된 사리는 643년 자장율사가 중국 당나라에서 모셔와 경주 황룡사 9층 목탑에 봉안했다고 기록된 부처님 진신사리 5과와 문무왕 설화가 깃든 감은사 서삼층석탑 사리 1과다.

이날 박물관장 오심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들은 연(輦)에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이운식을 가졌으며, 이운 이후에는 조계사 대웅전 부처님 전에 진신사리를 봉정하고 고불식을 봉행했다. 고불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총무부장 지현 스님, 문화부장 종민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고불식에서 설정 스님은 치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이후 8곡4두(8斛4斗)에 달하는 많은 사리가 나왔으며, 이는 각국으로 보내지게 됐다. 즉 사리는 곧 부처님으로 예경의 대상"이라며 "신앙의 대상인 황룡사와 감은사의 불사리가 박물관 수장고를 벗어나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진신사리를 모신 공덕으로 모든 이가 본래 선한 마음의 불성을 가진 존재로 돌아가고 남북평화통일·불법 융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번 사리 환지본처는 조계종이 국공립박물관으로부터 사리를 환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국립중앙박물관과 2016년 총 13건 129과의 사리를 3년에 걸쳐 돌려받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5건 40과의 사리가 본래 자리로 돌아갔으며, 올해에는 3건 7과의 사리를 환수하게 됐다. 국공립박물관 모셔진 불사리 이운 불사는 내년 사리 5건 82과의 환지본처를 끝으로 회향될 예정이다.

경주 황룡사지 출토사리와 감은사지 서삼층석탑사리는 출토 본사인 불국사로 이운됐으며, 불국사 무설전에서 사리친견법회 후 금동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26호)·금동아미타불좌상(국보 제27호)에 봉안될 예정이다.

또한 함께 환수된 울산 내원암 발견 사리는 먼저 사찰로 이운됐으며, 내원암은 6월 10일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진신사리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지만, 현재는 문화재로서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환수를 통해 사리는 단순 유물이 아닌 예경과 신앙의 대상인 성보로서 본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전법도생 정신부터 꺼내들자"

대불청 37차 전국청년불교대회 개최


대불청 회원들이 대중 앞에서 청년회기를 들고 불법홍포를 서원하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성권)는 6월 9~10일 경남 통영 동원리조트에서 37차 전국청년불교대회를 봉행했다.

'소통과 화합으로 단디 일어나라 청년불자!'란 주제로 봉행된 창립 98주년 기념 37차 전국불교청년대회에는 부총재 도법 스님, 울산 정토사 덕진 스님, 김성권 중앙회장, 강인식 울산경남지구 회장을 비롯해 700여 대불청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청년대회서는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의 강의 후 회기입장, 헌장전문과 강령낭독, 울산경남지구장 환영사, 중앙회장 대회사, 만해스님의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청년불자 선언 낭독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올해 불청대상이 경북지구 김성식 회원과 서울지구 박찬웅 회원에게 수여됐다.

김성권 회장은 대회사에서 "불국토를 향한 전법도생의 정신부터 꺼내 들자"고 말하며 "소외된 이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청년만해가 되자"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영상뉴스채널 'DUTV' 개국

동국대에 홍보실 소속 영상뉴스채널이 새롭게 개국했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학내 영상뉴스 채널 'DUTV(Dongguk University TV)'를 6월 초 개국했다"고 6월 12일 밝혔다.

DUTV는 대학 홍보실 소속으로 총 7명의 재학생 기자단으로 구성된 제작진이 대학의 주요 정책과 성과 등 다양한 뉴스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학에서 홍보실 소속의 방송국 운영은 한양대에 이어 두 번째다.

동국대 홍보실은 "지난해 조성한 교내 혜화관 스튜디오의 최신 장비를 활용해 교내외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고, 언론계에 진출할 꿈을 가진 재학생들에게 실제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방송국을 개국했다"며 "DUTV는 학내 구성원들이 학교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DUTV 뉴스는 격주 단위로 제작돼 교내 미디어보드·홈페이지·유튜브 등 각종 SNS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본격적으로 제작 효율이 높아진 후에는 보다 더 신속한 뉴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교단자정센터 해산결의 반려… 재가동된다

지난해 10월 설립 18년 만에 해산 입장을 밝힌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교단자정센터가 재가동된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재가연대 운영위원회는 교단자정센터 이사회가 해산결의를 하면서 총회에 부의를 요청한 '교단자정센터 해산의 건'을 상정하지 않고 반려했다"고 6월 12일 밝혔다. 재가연대는 반려 사유로 "교단의 건강성 회복에 있어서 전문기관은 교단자정센터가 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가연대는 함께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아직까지 국민들과 많은 불자들은 조계종단이 자정능력을 확보해 이 사회의 중요한 정신적 가치로 존속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종단 자정을 위해서는 교단자정센터의 분석과 제도적 개선 등의 전문적 제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단자정센터 해산결의 당시 이사들과 회원들은 지금까지 회비납부를 중단하지 않고, 교단자정센터가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동국대의 새로운 랜드마크 로터스관!
세계 명문대학을 향한 큰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건축 개요
- 위 치 동국대학교 중문(혜화문) 일대
- 건축면적 3,087.43m² (933.95평)
- 연 면 적 25,341.13m² (7,665.69평)
- 규 모 9개층 (지상 3층, 지하 6층)
- 건축비용 약 700억원

공간 구성 계획
- 다양한 국제 컨퍼런스와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1,000석 규모 컨벤션 홀
- 불교학 기반 교육, 연구가 어우러지는 불교 학술문화 공간
-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이자 미래불교의 대안으로 간화선 등 선수행을 위한 선센터
- 각종 동문활동을 위한 동문공간 및 동문라운지
- 국보급 보물들을 상시 소장,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

동참 방법

동국의 새로운 랜드마크, 로터스관 건립!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와 함께 시작됩니다.
▷ 후원 계좌 : 신한은행 140-000-649193 / 국민은행 99999-3333-49 / 농협은행 360-17-003822 (예금주 : 동국대학교)
▷ 후원 문의 : 02-2260-3300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